

농업용 무인헬기 병해충 방제 효과 특특

올해 1만6200ha 계획 비용 42% 절감 효과

농업용 무인헬기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해결과 병해충 방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일 농업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무인헬기가 2010년 13대, 2011년 22대, 올 5월말 현재 28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인헬기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는 면적은 2010년 5798ha에서 2011년 1만2606ha로 2배 가량 확대됐고, 올해는 1만6200ha를 공동방제할 예정이다.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작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농약살포 등 작



업에 대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업용 무인헬기 장점으로는 ▲뛰어난 방제능력 및 다목적 활용가능 ▲친환경적 방제 가능 ▲원격조종으로 농약 중독예방 및 방제작업 편의

제공 ▲날씨에 따른 소폭의 방제 제한요소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무인헬기로 방제시 소용되는 비용은 ha당 8만4000원으로, 경운기 부착 동력 분무기 및 관행 방제 비용(ha당 14만4000원) 보다 42%를 절

감할 수 있다. 이용범위도 벼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원예·과수작물로 확대되고 있다.

전남농협은 4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 무인헬기 4~10대를 동시에 투입해 방제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무인헬기를 이용하면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병해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농촌의 병해충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최근 본격적인 무인헬기 방제작업을 앞두고 사고예방을 위해 최근 화순 하나농 문화스포츠센터 앞 공터에서 안전비행 교육을 실시했다. /송기동기자 song@



자귀나무꽃 사이로 참깨밭 김매기

3일 강진군 대구면 향동마을 참깨밭에서 김매기를 하는 주민과 자귀나무꽃이 어우러져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옛날 시골에서는 자귀나무의 잎이 트면 늦서리 걱정 없이 곡식을 파종하고, 첫꽃이 피면 팔을 뿌듯다고 한다. <강진군 제공>

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과 관련된 일자리 사업까지 대상에 포함돼 있어 정부의 전환기준 보다 수혜 대상 폭을 확대했다.

특히 군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예산에 9000여만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1월에는 무기계약직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6급 이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사용하는 등 하위직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비정규직 67명 정규직 전환

장성군이 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0여명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은 자체사업 5개 직종 22명과 국비사업 19개 직종 45명을 합한 총 24개 직종 67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환을 시작한다.

우선 군은 올해 재정건조와 총액 인건비 부담 등의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을 7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무연수·직무수행 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

이번 장성군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무안 연꽃축제 부활

26~29일 회산백련지



무안군이 올해부터 연꽃축제를 다시 연다.

무안군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무안군 일로읍 회산 백련지(白蓮池)에서 '2012 무안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백련지는 둘레 3km·면적 33만여㎡로 연꽃 자생지로는 동양 최대 규모이다.

1997년 시작된 '무안 연꽃축제'는 '연산업 축제'로 바뀌었다가 한동안 중단됐다.

무안군은 백련이 피는 기간에 맞춰 연꽃축제를 개최해 품바 페스티벌, 분청 문화제, 연유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 등을 선보인다.

축제기간 동안 연차시음과 천연 비누 만들기, 백련지의 물길을 헤쳐며 하얀 연꽃을 감상하는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품바 페스티벌'은 품바 경연대회, 품바왕 초청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무형문화제 즐기기 시범, 품바나타 체험장 등이 운영된다. '분청 문화제'는 장작 가마 페스티벌과 분청 빛기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전남 저수지 15곳 긴급 준설

농어촌공, 24억 투입 용수량 24만3000m³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피해를 줄이고 저수지 담수량을 높이기 위한 저수지 긴급 준설에 나선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일 장성호 뚝 뚝이기 사업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지역 15개소 등 전국 74개 저수지에 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 준설을 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사업완료 후 확보되는 용수량은 164만㎡ 규모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예산 24억 원을 들여 고흥 호덕·보성 도촌저수지 등 15개소(추가 용량 24만3000m³)를 대상

으로 긴급 준설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는 저수율이 낮은 현재 준설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로부터 준설에 필요한 긴급예산을 지원받았다. 강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와 오염물질이 저수지 바닥에 쌓이면 물 저장 용적이 줄어들게 된다.

전남지역본부는 저수지 저수율이 낮고, 토사로 인해 저수지 용적이 줄어든 저수지를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는 저수지 담수량을 높이기 위

해 지속적으로 저수지 준설을 추진, 지난해까지 준설대상 전국 2916개소 가운데 2227개소의 준설을 완료했고, 전남지역본부는 관리하는 저수지 1050개소 가운데 244기 준설을 끝마쳤다.

박재순 사장은 "지난달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18개 지사·40개 현장을 찾아 농업인과 함께 하며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면서 "앞으로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사업 등 추가 용수확보를 통한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나주 배-영주 사과 뭉쳤다

영·호남 지자체 공동 브랜드 홍보·판매 추진

전국 최대의 배와 사과 주산지인 영·호남 양 지자체가 손을 잡고 공동 판매와 홍보 등을 하는 이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나주시와 경북 영주시는 배와 사과 공동 판매와 마케팅을 주 내용으로 한 '영·호남 기쁨 창조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와 영주시는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3년 창조지역 사업에 '사과하면 배가 되

는 영·호남 기쁨 창조사업'을 공동으로 신청해 2013년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돼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양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브랜드 개발 컨설팅 ▲대도시 특관행사 ▲홍소권 공동판매 및 대중매체 홍보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배와 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on@

이번 사업은 영·호남 지역 농업의 희망을 찾기 위한 첫 상생모델로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에도 수확시기가 비슷한 배와 사과 등을 절반씩 섞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지역 대표 브랜드를 함께 내걸고 홍보·판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양 지자체는 '희망(사과의 꽃말)'을 연도(배의 꽃말)해 화합의 꿈을 이룬다라는 주제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우리나라 대표과일인 '나주 배'와 '영주 사과'를 하나의 상자에 공동 포장한 신상품을 출시하고, 공동 관측 및 홍보 마케팅을 전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새 일 글

"겸손·위엄·자존심 있는 경찰상 정립"

임 광 문 목포경찰서장



"겸손하면서도 위엄있고, 자존심 있는 목포경찰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부임한 임광문(47) 목포경찰서장은 최근 경찰청이 10만경찰 초심찾기 대프로젝트를 실시해 정선 재무장을 실시한 사실에 언급하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요구와 관심을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임서장은 이어 "아무리 멋진 나무도 한 그루만 있어서는 아

름다운 숲을 이루지 못한다"며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무안 출신인 임서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찰에 입문해 목포경찰서 정보과장, 강진경찰서장, 전남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dss6116@

현대 삼호중 3100여명 급여 우수리 모금 운동

현대 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오병욱) 임직원들이 급여 가운데 1000원 미만의 잔돈(우수리)을 모아 연간 40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2일 현대 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임직원 3100여명이 급여 '우수리 모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기금은 사회복지 사업이나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 삼호중공업은 '우수리 모금 운동'으로 연 1900만원 가량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도 이에 준하는 금액을 별도로 출연해 연간 총 4000여만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경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제주도 현지 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 등록번호 : 616-81-6823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

주소장에서 제주무궁화관광을 쳐주세요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 3일

목포 119,000원
녹동 142,000원

가족끼리, 친목, 산악회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편안한 제주여행 다시찾을 수 있는 제주무궁화 관광이 되됩니다~

목포출발	『목카투어』 119,000원	녹동(고흥)출발	『녹동투어』 142,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1일째: 녹동남해고속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1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183,000원 [주중+주중]	▶196,000원 [주중+주말]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 일요일 16:30출발	★유료항공료불포함★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1박2일크루즈투어] 85,000 (한라산 등반or1일 제주관광)	[3박4일크루즈투어] 155,000 (한라산 등반+2일 제주관광)	[2박3일크루즈+항공투어] 153,000(주중) / 173,000(주말) ★유료항공료 불포함★
--------------------------------------	--------------------------------------	--

제주도 패키지 2회 이용시 2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증정or 여행금액 할인 (택, 2인이상 예약시 1인에 한함)

항공/배편/호텔/펜션/렌트카 예약 | 입금계좌안내: 신한 100-024-625912 | 예금주: (주)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 협찬: 남해고속씨월드웨리